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10월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27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044-203-5260), 장원 사무관(044-203-5265)

"기획 · 네트워킹 · 동반성장 – 전력기업 해외진출, 삼박자 지원정책 추진"

■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컨퍼런스 개최

- **지역별 · 국가별 프로젝트 잠재력 분석 및 수주대책 수립**
- **아시아인프라은행 등 국제개발은행과 상시 협력채널 구축**
- **공기업, 대 ·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1. 컨퍼런스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컨퍼런스를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7(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및 장소: '15.10.27.(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 참석자 :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 한전 신성장동력본부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
- 주요내용
  -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시장 분석과 진출모델
  - AIIB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전력인프라 시장 진출 방안
  - ADB 등 국제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방안 등

2. 컨퍼런스 주요내용

□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분산자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는 필수적인 플랫폼이며,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컨퍼런스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별, 국가별 프로젝트 잠재력 분석에 기반한 진출 전략을 대책하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공기업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 서울대 김희집 교수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서울대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등 국내 마이크로그리드 추진 현황과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 동향 등을 소개하고,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200억불(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 마이크로그리드는 미래 전력계통 패러다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 에너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전력 공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전 박성철 신성장동력본부장은 다가오는 AIIB 시대에 대비하여 아시아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기업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형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지 기업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필리핀, 인도네이시아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개도국의 노후 전력설비 교체 등을 언급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개도국의 노후설비 교체>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한전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① 에콰도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참여기업) 한전, 국내 P사

- (추진현황) 현지 전력환경, 전기차 관련 법규, 필요 충전기 형태 및 용량, 설치위치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키토 등 3개 도시에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 예상규모 : 3개 도시 30기의 충전인프라 구축 (3천만불 규모)

- (기대효과) 국내 충전기 및 인프라 시스템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트랙레코드)을 확보, 국내 기술이 현지 초기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② 쿠웨이트 스마트 홈* 구축

  * 쿠웨이트 과학기술원(KISR) 주도로 2017년까지 학교(90개소), 일반주택(120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설비 구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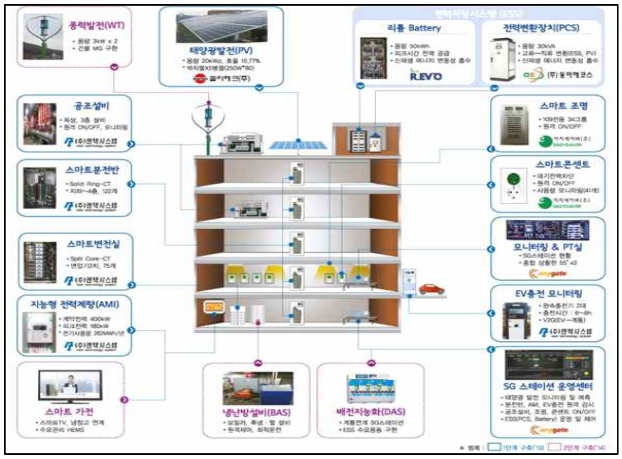
- (참여기업) 한전, 국내 W사, D사

- (추진현황) 쿠웨이트 현지 건물(4층, 최대전력 200kW규모)에 태양광 설비, 지능형 전력량계(AMI), 스마트 콘센트 등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모델을 시범 적용했다.

- (기대효과) 한전 구리지사 등 국내 실증경험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현지에 우리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에 참여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동반 진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쿠웨이트 스마트홈 구축>

3. 향후 정책방향

□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분야 주요 수출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국가별 차별화된 진출 대책을 수립했다.

○ 진출 대상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정책과 법제, 전력시장 현황, 파이낸싱 여건, 프로젝트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진출전략과 매치시키는 “국가별 프로젝트 잠재력 분석과 실행대책”을 마련

- 다양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사업 모델을 조합하여 고정 수입원을 확보,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사업 위험(리스크)이 감소할것으로 기대된다.

* 예) 필리핀 도서지역 통신중계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통신회사와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수익 확보(B2B), 잉여전력을 인근 주택에 공급(B2C), 향후 지역은행, ATM 등 상업시설로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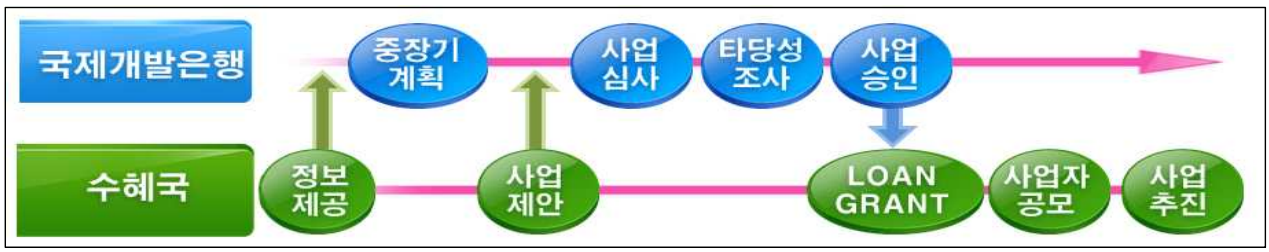
- 현지 국가별 전력설비 수준, 운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예) 북미·유럽연합(EU)·동아시아 :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재해로부터 전력공급의 안정성 중심
서남아시아·아프리카 : 오지·도서지역 전기 공급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위주

- 특히, 정치적 불안, 부패문제 등으로 초기 진출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개발은행(MDB) 등의 투자와 현지 진출을 연계해 사업 수행의 위험을 최소화

②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현지 정보공유, 사업(프로젝트) 개발 및 구체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제개발은행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상대국 정책결정자, 국제개발은행의 지역별 담당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소개,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추진과정 >

- 이를 위해 국제개발은행 관계자 초청, 국제컨퍼런스*, 현지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의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기술·실증 경험과 제도·정책을 소개할 수 기회**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 "국제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를 개최 (10.21~22, 코엑스)

** IDB(미주개발은행) 담당자, 멕시코 등 중남이 에너지 분야 관련 공무원 10여명이 한국을 방문, 우리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한전 등 국내 관련 기업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 (11.2~4, 서울)

③ 전력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해외시장 여건, 공동 진출전략, 기업별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협의체는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중심으로, 전력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스마트그리드 요소기술·서비스·플랫폼 구축 업체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기관, 엔지니어링 회사까지 참여하여 앞서 언급한 “국가별 프로젝트 분석과 실행대책”을 수립을 주도한다.

- 협의체는 우리기업의 컨소시엄 관리, 국가별 시장 및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술 자문,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초기단계에서의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국내 개발제품의 해외 진출에 앞서 열악한 현지 기후환경, 부족한 통신 인프라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추가 기술개발*, 수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수출기반 활동을 지원한다.

* 열악 환경들 고려한 검침정보 중계단말기 및 서비스 서버 개발
(N사, (‘15~17년, 정부지원 14억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장원 사무관(044-203-52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컨퍼런스 계획

1. 행사 개요

○ (주제) SG/MG 해외진출 사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 (일시/장소) '15.10.27(火) 14:00~17:00 /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 (참석) 산-학-연 관계자 및 민간 참여자 약 100명

2. 진행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발제	14:00~14:10 (10')	기조발표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세션 1: 주제발표			
발표 1	14:10~14:30 (20')	마이크로그리드 시장동향 및 진출 전략	김희집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 2	14:30~14:40 (10')	마이크로그리드 국가별 시장분석 및 진출모델	허윤재 매니저 한영회계법인
발표 3	14:40~14:50 (10')	AIIB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전력시장 진출 방안	신성장동력본부장 한국전력
세션 2: 사례발표			
발표 1	14:50~15:00 (10')	에콰도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정도양 대표 PNE Systems
발표 2	15:00~15:10 (10')	태양광산업 해외진출 사례	홍성민 대표 S-Energy
발표 3	15:10~15:20 (10')	한전의 SG/MG 회외진출 사례	SG사업팀장 한국전력
발표 4	15:20~15:30 (10')	정부의 SG/MG 해외수출 지원 정책	전력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
Coffee Break (15:30~15:50)			
세션 3: 패널토의			
패널토의	15:50~17:00 (70')	SG/MG 해외진출 방안	김대경 전문위원 KSGI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 미래로 | 세계로